

학생들 음악적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연구1)

현 경 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문제

II. 본 론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 내용 및 절차
4. 연구결과 및 해석

III.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음악적성, 오디오이션, 교사측정음악검사

1) 이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게 되며, 사회는 사람들에게 뭔가 한 가지에 뛰어나기를 바란다. 한 가지에 뛰어 내려면 어릴 때부터 그 어린이의 재능과 특징을 잘 파악하여, 각 어린이들의 개성에 알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재능과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적성검사, I. Q.검사, 진로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하고 있다. I.Q 검사는 적성검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검사로 “학습능력 적성 검사”이다.

음악적성은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적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음악적성은 일반 I.Q 검사나 진로 검사로는 알기가 어렵다. 음악적성은 다른 적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만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음악적성”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전통적인 음악적성의 정의는 “천부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일과 래도시(Boyle & Radocy, 1987)는 음악적성을 ‘유전적인 재능과 자연적 성장에 더불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발달되는 음악적 기술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또, 고든(Gordon, 1993)은 ‘음악적성(Music Aptitude)’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to learn music)’이라 정의하였다.

음악적성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라 정의하고, 우리가 어린이들의 음악적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의 진로 지도는 물론이고 일반 음악수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음악적성은 금방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 현장에서 음악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더욱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들은 그 타당도가 검증되어 사

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고든은 자신의 음악적성 검사인 음악적성프로파일(Musical Aptitude Profile(MAP), 1995/1988)의 예언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고든은 MAP을 이용해 음악적성을 검사하고, 3년 동안 음악을 가르친 후 음악성취도를 측정하여 음악적성 검사의 결과와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초기의 음악적성 검사가 학생들의 음악성취를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는 .71이었다. 즉, 3년 후의 음악성취도를 가르쳐 보지 않고 한번의 검사로 약 50%(.71의 제곱)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돕고 있다. 무슨 악기든 원하기만 하면 개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고든(1987)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적성 검사에서 고득점 20% 안에 드는 학생들 중 어떤 형태로든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50%도 안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학자(Auh, 1992; Doxey & Wright, 1990; Forsythe, 1984; Gaston, 1957; Gordon, 1984; Harrington, 1969; Hatfield, 1967; Lundin, 1949; Young, 1976)들은 학생들의 음악 적성에 대한 교사의 판단과 표준화된 검사 혹은 음악성취도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교사의 등급과 검사의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얼마나 정확히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파악하고 있을까? 또, 교사들은 음악적성이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교사들의 생각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2.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교사가 인식하고 평가한 학생들의 음악적성과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로 측정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어떤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밝힘으로서 학생들의 음악 적성을 바로 이해하여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수행한다.

첫째, 교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측정한 학생들의 음악적성 점수와 중급 음악 오디에이션 검사(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IMMA), Gordon, 1979) 음악적성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둘째,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검사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수를 분석하여 조사한다.

셋째,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의 척도는 무엇인지 조사 분석한다.

Ⅱ. 본 론

이 연구의 연구 대상, 연구도구, 연구 방법 및 절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70명과 교사 5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구와 경북의 5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 학생은 남자가 96명 여자가 74명이었으며, 참가 교사는 여자가 4명 남자가 한명이었다. 학교별 참가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 교 명	인 원 수
A	44
B	40
C	37
D	39
E	10
합계	170

2. 연구도구

1) 교사 측정 음악 적성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였다. 음감과 리듬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IMMA와 똑같이 한 하위 검사가 4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교사들 각자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1년 동안 말아 가르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였다.

2) IMMA

학생들의 음악적성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고든의 중급 음악 오디에이션 검사(IMMA)가 사용되었다. IMMA는 고든의 음악 오디에이션 검사 초급 중급 고급(Primary(PMMA), 1986; Intermediate(IMMA), 1986; Advanced(AMMA), 1989) 중 중급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음악적성 검사이다. 고든은 “음악이 들리지 않을 때 음악을 상상하는 상상력”을 오디에이션(Audiation)³⁾이라 정의하였다(Gordon, 1993, 2쪽). 고든은 오디에이션 능력이 음악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 믿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검사에서 ‘오디에이션’ 능력을 채려고 노력하였다. IMMA의 신뢰도는 .70에서 .91 사이로 조사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 중 하나이다.

이 검사는 음감과 리듬감 2개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검사는 40문항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자악기로 연주, 녹음되었다. 모든 문항은 고든 자신이 작곡한 것이다. 각 검사는 글을 못 읽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림으로 표시된 답안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① 음감검사(Tonal Test): 이 검사는 리듬의 요소가 배제된 똑같은 길이의 음만을 사용하여 만든 음감검사이다. 응시자들은 한 문제에서 한 쌍의 음 높낮이로만 된 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답하게 되어 있다.

3) 오디에이션(Audiation)은 고든이 만든 용어로 청각 상상력이란 뜻의 시각 상상력 ‘Imagination’에 대칭되는 말이다(저자 주).

- ② 리듬감검사(Rhythm Test): 음감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음높이가 없는 리듬 패턴만을 사용했다. 응시자들은 한 쌍의 리듬 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답하도록 되어 있다.

3) 설문지

교사들이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음악성을 측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가 만들어졌다. 두 가지의 설문지<양식 IV, V>가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설문지에서는 단순히 음악적성 측정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인식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음감과 리듬감을 따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찾아 적게 하고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부록 6, 7>에 나타내었다.

3. 연구 내용 및 절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 개의 편지가 각 연구 대상 교사들에게 보내어졌으며, 이에 동의한 교사들만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연구의 참가를 요청하는 편지가 여러 명의 교사에게 보내어졌다. 연구 참가를 요청되 참가 자격을 밝혔다. 참가 자격은 현재 1학년에서 4학년 담임이어야 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며, 학교나 학부형의 반대 없이 IMMA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를 하겠다고 답한 교사들에게는 두 번째 편지가 보내졌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일정을 밝혔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싸인을 받았다. 그리고 곧 이어 세 번째 편지가 보내졌다. 세 번째 편지에는 연구 목적 연구과정 연구 시 주의할 점 등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원래는 6명이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한 명은 연구 도중 탈락하였다. <편지 1, 2, 3>의 전문은 <부록 1, 2, 3>에 수록되었다.

1) 교사의 음악적성 측정

우리나라는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사가 음악을 가르친다. 먼저 음악을 가르친 담임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음악적성의 측정을 부탁하였다. 교사들은 각 학생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학생의 음악적성을 점수로 나타내었다. 교사들은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한 학생의 음악적성을 음감과 리듬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학생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학년말에 음악적성이 측정되었다. 교사에 의해 매겨진 점수도 IMMA와의 비교를 위해 IMMA와 같은 음감과 리듬감 각 4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담임교사가 측정한 점수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존중되었다.

정확한 음악적성 측정, 기록을 위해 3개의 양식이 만들어져서 각 교사들에게 보내어졌다. <양식 1>은 음감 점수표인데 각 학생의 이름을 쓰고 그 학생에 대한 음감 점수를 측정자 위에 표시하도록 만들어졌다<부록 4>. <양식 2>는 음감 점수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리듬감 점수표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에 따라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양식 3>은 교사의 음감, 리듬감 점수표로 <양식 1, 2>에서 만들어진 것을 종합하여 점수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부록 5>. <양식 3>과 별도로 <양식1, 2>가 만들어진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더 기울여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2) IMMA 실시

담임교사에 의해 음악적성이 측정된 것이 확인된 후에,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에게 IMMA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IMMA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매뉴얼이 각 담임교사에게 보내어졌으며, 각 담임교사는 그 매뉴얼에 의해 IMMA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IMMA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교사는 연구자에게 문의할 것을 요청 받았으며, 연구자는 그 의문점들을 상담하여 해결하였다.

3) 설문지 실시

연구자는 연구가 실시되기 전에 각 교사들에게 할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예상, 측정하였는지 그 과정과 생각을 물었다. 교사자신의 음악적성측정과 IMMA 실시 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가 답해지기까지 연구 참여 교사들과 여러 번의 전자 메일과 전화 통화로 여러 단계를 실시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4) 결과 분석

각 교사들에 의해 작성된<양식 I, II, III, IV V>는 연구자에게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메일로 보내졌으며, 실시된 IMMA는 연구자의 요청과 지도에 따라 각 답임 교사들에 의해 채점되었다. 채점된 점수와 답안지도 연구자에게 보내어졌다. 보내어진 연구 자료에 의해 결과가 다음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첫째,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점수와 IMMA 음악적성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가 계산되었다.

둘째,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검사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수를 분석하여 조사되었다.

셋째,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의 척도는 무엇인지 조사 분석되었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는 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의 상관관계, 교사 측정 음악적성의 특징, 교사의 음악적성 측정의 기준 등으로 나뉘어 분석되고 해석되었다. 다음이 이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이다.

1) 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의 상관관계

일단 교사 측정교사 측정 음악적성 과 표준화 된 음악적성 검사인 IMMA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기 위해 상관계수가 계산되었다.

(1) 교사 측정 음악적성 결과

교사자신이 판단하여 측정한 음악적성은 음감과 리듬감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음감 평균은 40점 만점에 22.97점에서 31.56까지 분포되었으며 리듬감은 24.00점에서 30.51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리듬감보다 음감이 점수 분포의 차이가 컸다. 그 차이는 교사에 따라 달랐다. 특히 리듬감의 표준 편차는 교사에 따라 2.84에서 10.35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교사에 의해 측정된 음감과 리듬감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교사 측정 음악적성의 평균과 편차

학교별	음감평균	음감표준편차	리듬감 평균	리듬감 표준편차
A	26.47	4.89	24.20	2.84
B	26.62	9.49	24.00	9.62
C	22.97	8.77	26.62	10.35
D	31.56	4.12	30.51	3.48
E	30.50	6.43	28.00	9.49
전체	27.15	7.65	26.35	7.77

(2) IMMA 결과

학생들에게 실시된 IMMA의 음감 평균은 34.49이었다. IMMA의 신뢰도는 음감이 .82, 리듬감이 .70이었다. 고든이 조사한 시험 재시험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음감 검사가 .85-.88이었고, 리듬 검사가 .82-.84이었다(Gordon, 1986, 92쪽). 미국 고든의 신뢰도 보다는 한국 학생들의 신뢰도가 낮았다. 연구 대상 인원이 적은 것이 그 한 이유로 추측된다.

IMMA의 학년별 평균은 대체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이 높아졌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개발자인 고든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고든이 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음정검사의 평균이 31.1에서 35.2이었다(Gordon, 1986, 88쪽). 미국 학생들의 리듬 검사 평균은 29.2에서 33.6이었다(Gordon, 1986, 88쪽). 연구 대상인 한국 학생들의 IMMA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IMMA 학년별 평균

학년별	음감 평균	음감표준편차	리듬감 평균	리듬감 표준편차
1학년	32.38	5.18	30.00	4.49
2학년	31.63	5.77	31.20	6.10
3학년	36.64	1.93	33.95	2.51
4학년	36.51	2.23	33.48	2.68

음감검사 결과에서 평균이 1, 2학년과 3,4학년은 유의도 .05 레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리듬감 검사에서는 1학년과 3, 4 학년,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났으나($p > .05$), 2 학년과 4학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것은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IMMA 학년별 차이

학년	음감				리듬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	*			*	*
2학년			*	*			*	
3학년	*	*			*	*		
4학년	*	*			*			

*은 유의도 .05 레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p < .05$)

(3) 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의 상관관계

교사 측정 음감과 IMMA 음감의 상관계수는 .43이었으며, 교사 측정 리듬감과IMMA 리듬감과의 상관계수는 더 낮아 .37이었다<표 5>. 즉 음감은 약 18%(.43의 제곱)가 공통(common)이라 말할 수 있고, 리듬감은 약 14%(.37의 제곱)가 공통이라 말할 수 있다.

<표 5>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교사 측정 음감	교사 측정 리듬감
IMMA 음감	.43	
IMMA 리듬감		.37

B. 교사 측정 음악적성의 특징

교사측정음악적성 측정 결과를 분석해 보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교사가 측정한 음악적성이 남녀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고 둘째는 교사 측정의 음감과 리듬감의 점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측정한 음악적성 점수를 남녀로 나누어 계산해 보니 여학생 그룹의 음악적성점수가 남학생그룹의 점수보다 높았다. 즉,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음악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6>. 음감 리듬감 모두 유의도 .001수준에서 여자의 점수가 남자의 점수보다도 높았다. 반면에 IMMA결과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교사들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음악적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6> 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 측정 결과의 남녀의 비교

	교사 측정 음감	교사 측정 리듬감	IMMA 음감	IMMA 리듬감
남자	25.14	24.50	34.21	32.04
여자	29.77	28.76	34.85	32.62
유의도 (p 값)	.00	.00	.38	.39

교사가 측정한 음악적성의 음감 점수와 리듬감 점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니 .80이었다. 64%(.80의 제곱)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비록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음감과 리듬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음에도 많은 부분을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IMMA의 음감 점수와 리듬감 점수의 상관관계

는 .64로 교사측정 음악적성보다는 낮았다<표 7>. 특히 교사 B와 C는 그 상관계수가 .92와 .93으로 아주 높았다. .90이 넘었다는 것은 음감과 리듬감을 나누어서 측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었다. 각 교사별 음감 리듬감 상관계수는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7> 교사 측정 음악적성과 IMMA 의 내적 상관계수

	교사 측정 음감	IMMA 음감
교사 측정 리듬감	.80	
IMMA 리듬감		.64

<표 8> 교사별 내적 상관계수

학교명	교사 측정 음악적성	IMMA
A	.63	.30
B	.92	.70
C	.93	.55
D	.75	.38
E	.74	.38

3) 교사의 음악적성 측정의 기준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판단기준을 설문지를 통해 물어 보았다. 교사들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관찰을 토대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았다. 물론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음악적성을 판단한 경우는 드물었다. 교사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다음 중 둘 이상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첫째, 음정 패턴, 리듬 패턴, 노래 따라 하는 능력이다. 교사들 5명중 4명이 음정이나 리듬 패턴을 따라 하는 능력이나 노래를 따라 하는 능력으로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둘째,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기 능력이다. 교사들 5명 중 4명이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는 능력에 따라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셋째, 독보 능력이다. 교사들 5명 중 3명이 학생들이 음악시간의 제재 곡을 읽는 능력이나 리듬 패턴을 읽고 연주하는 능력에 따라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넷째, 악기 연주 능력이다. 교사들 5명 중 3명이 학생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능력이나 리코더를 연주하는 능력에 따라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다섯째, 그 외 음악적 능력으로 음의 높낮이 구별, 일정 박 등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는 능력, 청음능력, 즉흥연주 능력, 음 기억력, 음악적 감각 등이다.

여섯째,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교사들이(4명) 음악 외적인 요소들, 즉 교과학습능력, 성격, 참여도, 생활태도, 흥미도, 집중력, 이해력, 자신감 등으로도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판단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대부분 음악성취도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 교사들은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의 다른 점을 이해 못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음악성취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습 능력이나 수업태도 자신감, 성격 등으로도 음악적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학습능력이나 태도가 음악적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특히 성적이나 수업태도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음악적성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사 자신에게 어떤 기준도 주지 않고 교사 자신의 판단대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게 한 결과와 표준화 검사인 IMMA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그 상관계수는 음감이 .43이고 리듬감이 .37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생각하는 음악 적성과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사 측정 음악적성 검사 결과 그 평균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다. 음감 리듬감 모두 유의도 .001수준에서 여자의 점수가 남자의 점수보다도 높았다. 이 결과로 보아 교사들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음악적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교사 측정 음감과 리듬감 점수의 상관도는 높았다(.80). 교사는 음감과 리듬감을 따로 측정했음에도 두 점수 간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두 명의 교사는 .92가 넘어 한 가지만을 측정한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교사들은 대부분 음정 리듬 패턴 따라하는 능력, 노래하는 능력, 독보력 등 음악성취도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 교사들은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의 다른 점을 이해 못하고 있는 듯 하였다.

다섯째, 교사들은 음악성취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습 능력이나 수업태도 자신감, 성격 등으로도 음악적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학습능력이나 태도가 음악적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교사들은 음악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히 성적이나 수업태도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음악적성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음악적성과 음악적성검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 교사들은 학업성적, 성격, 수업태도 등 음악외적인 것을 음악적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의 적성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교사가 각 학생의 개인차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판단보다는 표준화되고 타당성이 있는 음악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Doxey & Wright, 1990; Gordon, 1993; Hatfield, 1967). 그 결과를 활용하면, 교사는 각 학생의 음악적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그 학생의 음악적 성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음악적성 검사를 통하여 학생의 음악적 잠재능력과 음악적 성취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내어 수업내용과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여 효율적인 음악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 된 음악 적성검사를 이용하여 음악교육에 이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현경실 (1992). 한국 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성 비교 연구, **국악교육**, 10.
- 현경실 (1994). 음악 적성 형성과정과 한국음악 적성검사 제작을 위한 방안 연구. **국악교육**, 12, 33-55.
- 현경실 (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학지사.
- Auh, M. (1992).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ptitude test scores and teacher's ratings of music aptitude for fifth-grade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 Boyle, J. D. (1992). Evaluation of music ability. In R. Colwell, Ed. *The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47-265.
- Doxey, C., & Wright, C. (1990).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s music abi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25-440.
- Forsythe, R. (1984).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uterized preschool measure of music audiation.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Gaston, E. T. (1957). *A Test of Musicality: Manual of directions*. Lawrence: Odell's Instrumental Service.
- Gordon, E. E. (1979).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 Gordon, E. E. (1986).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 Gordon, E. E. (1984). A longitudinal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78, 1-23.
- Gordon, E. E. (1989).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IA Publications, Inc.
- Gordon, E. (1993). Learning sequences in music. Chicago: G. I. A. Pub.
- Gordon, E. E. (1995).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 Harrington, C. J. (1969). An investigation of the primary level musical aptitude profile for use with second and third grad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7(4), 359-368.
- Hatfield, W. (1967). An investigation of the diagnostic validity of MAP with respect to instrument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Kwalwasser, J., & Dykema, P. (1930). Kwalwasser-Dykema Music Tests. New York: Carl Fisher.
- Lundin, R. W. (194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t of musical ability tests. *Psychological Monographs*, 63, 305, 1-20.
- Seashore, C. E. (1919).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 New York: Columbia Phonograph Company.
- Wing, H. D. (1960). Standardised Tests of Musical Intelligence. Sheffield, England: City of Sheffield Training College.
- Young, W. T. (1976).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four music achievement and music aptitude tes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4(3) 97-109.

ABSTRACT

Study of Teachers' Perception on Students' Music Aptitude

Hyun, Kyung-Si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help educate students by investigating how teachers perceive students' music aptitude.

For this, the following tasks are executed:

- (1) To compute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music aptitude measured based on teachers' own criteria and music aptitude measured by IMMA, a standardized test;
- (2)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teachers' measurement of students' music ap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measurements of music aptitude and the IMMA scores were .43(tonal) and .37(rhythm).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asurements. The teachers have a tendency to consider girls better than boys. They also have a tendency to confuse academic achievement, attitude, and characters with music aptitude.

The teachers subjective judgement of students' music aptitude can be a problem. They need to use standardized music aptitude test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subjective judgements.

<부록 1> <편지 1>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적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인데 6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2월 안에 답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든의 음악적성 검사인 IMMA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검사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 선생님 자신의 음악적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될 것이며 현재 나와 있는 음악적성 검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실 선생님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반드시 현재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음악을 가르치고 있으셔야 됩니다.
2. 3월에는 새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실 터이니 2월중에 거의 모든 연구를 진행시켜야 되므로 2월중에 시간을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반드시 2월중에 반 학생들에게 고든의 음악적성 검사인 IMMA를 실시해야 하므로 학교의 반대나 학부형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그때그때 전자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연구가 끝날 것이며 각 교사들이 연구에 보내는 시간은 총 10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문지나 연락은 전자메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무척 바쁘신 줄 아오나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다음의 정보를 일단 제게 전자메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2. 전화번호
3. 가르치고 있는 학교명과 학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이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거절하셔도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절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참여가 음악교육과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전자메일 주소는 kyungsilhyun@hotmail.com 이고 제 전화번호는 xxx-xxx-xxxx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록 2> <편지 2>

본인 현경실 교수는 학생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측정하는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한국의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각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객관적인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각 단계별로 교사들의 의견과 반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각 교사들은 이 연구에 10시간가량을 보내게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40분 정도의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가하게 되면 다음의 연구일정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할 것이며, 교사들은 무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 1단계: 음악적성 점수 측정, 양식 I, II 작성, 전자 메일로 우송

제 2단계: 양식 III, IV 작성, 전자 메일로 우송

제 3단계: 학생들의 음악적성 점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교사들이 양식 I-IV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본 연구와 연구 논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강연에만 쓰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명은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사들은 연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날짜

연구자 서명

날짜

증인 서명

날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경실 교수(kyungsilhyun@hotmail.com)이나 전화 미국 연구실 xxx-xxx-xxxxx, 혹은 집xxx-xxxx-xxxxx)에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편지 3>

연구를 도와주신다고 수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같이 귀한 분들이 계시니 우리 음악교육계가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성적 때문에 바쁜 시기임에도 참여해 주신 다니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수행할 연구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조사, 기술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정: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4개의 설문지(양식)와 학생들에게 고든의 IMMA를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문지(양식)들은 차례대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답이 오면 그 다음 설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 주의 점

- 1)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간 음악을 가르치고 담임을 하셨으니 충분하다고 봅니다.
- 2) IMMA를 실시하기 전 양식(설문지: 이것은 설문지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편리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I, II, III을 먼저 해 주십시오.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 3) 학년이 바뀌기 전 2월 중에 IMMA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4) 그 후 설문지는 늦어지면 3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 5) 무슨 질문이 있거나 한 단계의 일이 끝나면 항상 이메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야 할 일

- 1) 양식 I, II, III 해 주십시오. 양식I, II, III은 첨부메일로 보냅니다. 양식 I, II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리듬 음악적성과 가락 음악적성(음감)을 0점에서 40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시는 것입니다. 예로 한 장만

보내니 필요한 만큼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단순히 선생님의 의견을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니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각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점수 부여가 끝나면 양식 III을 작성해 주십시오.
- 3) 여기서는 각 학생들의 학교에서 쓰는 번호도 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처리상 필요합니다.
- 4) 양식 I, II, III의 작성이 끝나면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 5) 그 후 IMMA를 실시해 주십시오. IMMA는 각 선생님에게 우편으로 2월 4일 날짜로 보내 드렸습니다.

IMMA를 실시할 때 주의 할 점

- 1) 다행히 매뉴얼을 같이 동봉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실시해 주십시오.
- 2) 답안지는 편리상 몇 장만 부쳤습니다. 복사해서 써 주시길 바랍니다.
- 3) 매뉴얼은 번역이 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검사 자체는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부득이 영어 판을 동봉하였으니 각 번호(번호가 물건 혹은 동물 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마다 번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 3) 검사 실시가 끝나면 바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이메일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현경실이 드립니다.

<부록 4> <양식 I>

음감 점수표

학교이름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학생이름	점 수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부록 6> <양식 IV>

설 문 지

1. 학생들의 음악 적성 중 음감을 예상 측정하였는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측정했는지 당신의 의견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2. 학생들의 음악 적성 중 리듬감을 예상 측정하였는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측정했는지 당신의 의견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부록 7> <양식 V>

1. 양식Ⅲ을 보고 음감이 가장 높은 학생을 찾아 아래에 쓰십시오. 만약에 동점이 여러 명이라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쓰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서 쓰십시오).

-
2. 위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이 높은 음감 점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각 각 기술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 쓰십시오).

학생이름: _____

이유:

3. 양식Ⅲ을 보고 리듬감이 가장 높은 학생을 찾아 아래에 쓰십시오. 만약에 동점이 여러 명이라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쓰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서 쓰십시오).

-
4. 위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이 높은 리듬감 점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각 각 기술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 쓰십시오).

학생이름: _____

이유:

5. 양식Ⅲ을 보고 음감이 가장 낮은 학생을 찾아 아래에 쓰십시오. 만약에 동점이 여러 명이라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쓰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서 쓰십시오).
-

6. 위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이 낮은 음감 점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각 각 기술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 쓰십시오).

학생이름: _____

이유:

7. 양식Ⅲ을 보고 리듬감이 가장 낮은 학생을 찾아 아래에 쓰십시오. 만약에 동점이 여러 명이라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쓰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서 쓰십시오).

-
8. 위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이 낮은 리듬감 점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각 각 기술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필요하면 칸을 더 만들어 쓰십시오).

학생이름: _____

이유: